

오피니언

다산포럼

김정남



백두산은 예부터 한국인에게 인생에 한 번 꼭 가보고 싶은 산이었다. 백두산에 정계비가 세워진 지 약 50년 뒤에 백두산 기행을 했던 서명령(徐命膺 1716~1787)은 임금이 내리는 홍문관 수찬 벼슬을 세 번 죽거나 사양한 죄로 갑산으로 귀양을 가면서 “내가 아직 하지 못한 일이 세 가지로, 그 하나는 ‘주역’을 읽는 일이며, 하나는 백두산을 구경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금강산 유람을 하는 것인데, 이번 유배지가 마침 백두산 아래인 것은 하늘이 백두산 구경을 이루어주시기 위함”이라고 썼다.

한민족에게 백두산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산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백두산 이야기로 “이 나라 산 줄기의 아비”(古山子金正浩)요, “우리 종성(種姓)의 균원이자, 우리 문화의 원인이고, 역사의 포태(胞胎)”(六堂 崔南善)였기 때문이었다. 특히 일제 강점기에 나라 젖은 백성으로 단군단강의 성지요, 강역산하의 조종(祖宗)인 백두산에 오르는 감회는 더욱 각별하고 애틋하였다. 최근 내 나라, 내 강도를 밟고서가 아니라 중국 쪽으로 백두산을 오가면서 한국인들이 느끼는 감회 또한 유다를 수밖에 없다.

언제, 어떻게 오르건 백두산 여러 봉우리와 그에 둘러싸인 천지의 서비스란 모

백두산에서 생각나는 것들

일보 1921년 8월 21일자, 동아일보 탐험대).

내가 이리저려한 인연으로 너 몇 차례나 백두산에 오를 수 있었고, 그때마다 천지의 선연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더 없는 행운이었다. 비단 끝에 천지가 열릴 때 우리 민족이 바로 천손(天孫)일지도 모른다는 황홀한 신비감에 젖기도 했다. 백두산이야말로 한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해주는 땅이며, 한민족의 역사와 숨결이 배어있는, 떼려야 뗄 수 없는 한민족의 땅이라는 것을 다짐하고 했다.

그러나 지난 7월, 백두산 종주산행을 하면서는 백두산은 한민족의 땅, 그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전에는 오직 천문봉 쪽으로 바로 오르거나, 장백폭포를 거

쳐 천지 달문에 이르는 북파(北坡) 길만이 개방되어 있더니, 언제부터인가 서파와 남파 길도 열렸는데, 이번에 나는 서파 쪽으로 올라 북파 쪽으로 내려오는 종주산행길을 걸으면서, 백두산은 조금은 더 깊고 넓게 오감 할 수 있었다. 백두산이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서파 쪽에는 백두산이 화산폭발 할 때 거대한 용암이 훌고 지나간 금강 대협곡이 있다. 사람들은 비록 규모는 작지만 미국의 그랜드캐년을 밤볼ike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천지 주변의 능선을 따라 피어 있는 야생화는 그 종류와 색깔도 다양하게 나를 펼쳐진 천상화원의 그 크기와 아

왕지(王池)는 백두산이 우리만의 성지일 수는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 시대에 따라 선비·오환·십위·몽골·읍루·말갈·물길·여진·만주족으로 불리웠던 동호(東胡), 속신(肅慎)족과, 부여·고구려·발해를 세웠던 우리 예백족, 그 모두에게 백두산은 각각 나름대로 의미있는 산이었다.

한반도의 6배가 넘는 만주 땅에서 일어난 세력들은 혹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존재를 잊어버렸는가 하면, 약해서 경복되거나 문화적으로 중국에 동화되었다. 백두산은 한민족의 존재 역사와 그 의미를 돌아보게 한다.

백두산은 또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그리고 백두산은 그 누구도 베타하지 않고, 독점적으로 그 누구의 땅도 아닌, 그 둘레에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는 여러 민족, 모든 사람들의 신성한 땅일 수밖에 없다.

홍익인간의 정신이 계시된 땅이다. 남북 민족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두루 인간을 이롭게 할 홍익문명을 이루어 나가라고 목언으로 말하고 있다. 그리고 보면, 백두산은 하늘로,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야 할 역사의 원천이자 열려있는 창구다. 토문에서 보았던 여위고 왜소했던 북한 병사의 모습과 함께, 북한에 대한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곳도 백두산이다.

〈언론인·다산연구소 제공〉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GO 칼럼

류봉식



옛 전남도청 별관문제가 또다시 지역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얼마 전 주진단이 발표한 ‘부분보존 안’에 대해 ‘원형보존을 바랐던 다수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사실상의 철거안’이라며 보존대책위와 오월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주진단은 본관과 연결부위 6m와 별관 24m를 포함한 본관으로부터 30m를 철거하는 암을 최종 발표했으나,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또 다른 갈등 재연에 대한 걱정과 문화전당 사업 자체의 표류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강운태 시장과

이 추진함으로써 첫 단추부터 잘못 끊었을 뿐 아니라 2008년 사적지 보존논란이 본격화되었던 시점에서는 오월 광주의 상징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했다. 그동안 대책위 및 오월단체들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인 안을 발표함으로써 내용과 절차에 대한 반발을 초래한 점이 문제시된다.

보존에 대한 철학과 의지만 있다면 지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보존방안은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 안전 때문에 보존이 불가하다면 전체를 철거하고 안전하게 옛 모습을 새로 복원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이다.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강운태 시장과

조급함에 빠져 역사적 오류 범해서는 안 돼

시의회도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행보를 다그치고 있으므로 시도민 대책위 또한 ‘오월의 문’이 최선의 앙간이라는 입장은 재차 확인하면서도 각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의 방안을 찾겠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다.

도청별관의 존폐논란이 지역사회 구성원끼리의 상충된 이해관계로부터 비롯된 문제가 아니기에 앙간의 의견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지역사회 소통과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힘과 지혜를 어떻게 모아 나가느냐에 따라 향방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추진단도 충분한 지역 의견을 수렴해 소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005년 문화전당 설계안을 공모할 당시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던 도청 일대 건물들에 대한 면밀한 사전조사 없

지역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 원형보존이라는 사적지 보존의 당위성과 시민적 요구에 기초하면서도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최선의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광주시장과 시의회 또한 문화전당의 조속한 완공에 집착한 나머지 성급한 미봉책을 내서는 안 될 것이다.

급할수록 애돌아 가고, 돌다리도 두들기며 가라는 옛말이 있듯이 아무리 복잡하고 바쁘더라도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세계인과 100년 뒤 후손들에게 비난받지 않을 역사적 판단과 신중함이 모두에게 요구된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문화, 그 중에 세계적으로도 찬사를 받고 있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유무형의 자산들을 모두의 소통으로 지켜내길 바란다.

〈광주전남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아파트 비상대피 방해… 복도·계단 내 적재물 치워야

며칠 전 저녁 아파트에 사는 언니 집에 갔을 때 일이다. 음식을 준비하던 중 우리 아들이 헬레벌떡 뛰쳐 들어오면서 밑에 층에 디에선가 불이 났다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안 되겠다 싶어 아이를 안고 얼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관리실에 신고를 했다. 관리실에서 소방서에 신고를 한다며 왔다갔다 하는 사이 전화가 다시 걸려왔는데 그 빌이 낮 집이었다. 전화의 내용은 불 난 게 아니니 소방서에 신고하지 말라며 미안하다는 것이다.

사연인즉 그 집에서 아파트 현관 문앞 계

단에 종이와 재활용품을 좀 쌓아놨던 모양이다. 그런데 그 집 아이가 아빠 라이더를 가지고 장난치다가 그만 실수로 종이에 불을 붙였다는 것이다.

원래 아파트 현관 앞 각 층의 계단은 비상용이다. 그곳에 화재 등 비상시 엘리베이터 작동이 안 될 경우 아파트 주민들의 비상대피를 위한 것이라 관리사무소에서도 현관 앞 계단에 아무것도 놓지 말라는 안내방송을 수시로 한다.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스스로 계단에 자전거나 폐품을 쌓아두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송희건·광주시 북구 태령동

기고

나경택



지난 10일 광주시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공연장, 96세의 할아버지가 알록달록 우스꽝스런 가발을 쓰고 의형제를 맺은 칠순의 동생들과 나란히 노래한다. 40년을 함께 해 온 부부가 무대에서 대정한 입맞춤을 하며 한 팔씩 머리 위로 둘러 하트모양을 만들어낸다.

뿐인가. 눈부신 흰색 양복 흰 구두에 빨간 넥타이를 맨 노신사가 구성진 하모니카 주연로 큰 박수를 받고, 남편은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 안전 때문에 보존이 불가하다면 전체를 철거하고 안전하게 옛 모습을 새로 복원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이다.

경순하지만 자랑스럽게 이 소감을 밝

인생은 아름다워

파는 흉내를 내며 관중들을 포복절도하게 만든 무대.

며칠 전 광주 최초의 노인모델선발대회인 ‘빛고을시니어모델선발대회’ 무대에서 펼쳐진 진풍경들이다. 90여팀의 시니어들이 참여한 이 대회는 그야말로 ‘불거리’, ‘들을 거리’, ‘이야깃 거리’가 풍성하게 쏟아져 박수가 절로 나오는 무대였다.

독특했던 것은 출전자들의 분위기였다. 경연에 임하는 의욕이 넘쳐흐르면 서도 출전자간에 팽팽한 긴장과 경제보다는 서로를 격려하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우정’ 어린 모습은 이 행사가 대회를 넘어 축제 분위기로 승화되는 모습을 염두에 두고 있다.

또한 인상적인 부분은 부부커플들에게 받았다. 따로 서 있으면 평범하기 그지없는 이들이 부부로 짙은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사랑에 감동받았던 것이다.

‘삶은 축제이며 인생은 아름다운 무대’임을 가르쳐준 것이 이번 시니어모델대회가 거둔 가장 큰 성과인 것 같다.

〈빛고을노인복지재단 기획관리본부장〉

자동차 무분별 튜닝 교통사고 위험 높아

얼마 전 회사 일로 승용차를 타고 직업과 함께 지방에 가던 길이었다. 지방국도에서 왕복 2차선(평균 1차선)의 좁은 길을 운전하고 있던 중 냉방이 옆 차로에서 일반 차량을 개조한 튜닝카 한대가 끼어들었다.

앞에서 사고가 났는지 그날 따라 정체가 계속 되는데, 이 차량은 이동할 때마다 오토바이와 같은 굉음을 내며 시종 짜증나게 했다.

더욱 큰 문제는 후미등을 깨끗하게 칠해놓아 뒤차인 우리가 보기에 언제 브레이크를

잡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간만에 차가 빠져나온 액셀레이터를 밟았다가도 분명히 앞차인 그 튜닝카 후미등은 빨간색이 아닌 데도 차가 서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무절제한 튜닝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치명적인 위험을 준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만약 브레이크 상황을 눈치채지 못한 트럭이 뒤에서 밟았다고 생각해보시라. 경찰에서도 이런 차를 강력 단속해야 할 것이다.

▲나혜성·광주시 서구 서창동

시설

인사청문회 눈 부릅뜨고 해야 하는 이유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각료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0~25일로 임박해지면서 위장 전입과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이 도미에 오르고 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세자녀의 우수학군 편입을 위해 5차례나 위장 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후보자는 사과의 뜻을 밝혔다고 한다. 더 우기 그는 부동산 투기와 세금 탈루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태다.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는 근거도 없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손상하는 발언을 하고 천안합 희생자 유족의 슬픔을 동물에 빗대는 상식 이하의 표현을 해 사회 압력을 받고 있다. 그는 위장 전입을 비롯해 문체집이 속속 제기되고 있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경찰 조직의 안정과 사기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이재훈 지경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과 부인이 강남의 아파트 외에 상가와 근린생활시설 등 4건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이유다. 인사청문회는 제 소임을 다해야 하는 이유다.

광주·전남 청소년 자살률 ‘위험수위’ 넘어

우가 30%에 달해 10명 중 3명은 정확한 이유없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에는 유명연예인의 자살로 인한 모방자살이나 동반자살이 빈번한 것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살률을 낮추려면 무엇보다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진국에선 자살미수자는 물론 중·고생들에게 자살 예방법을 교육한다. 그 결과 핀란드는 1990년 인구 10만명 당 30명이던 자살률을 10년 만에 18명 수준으로 낮췄다. 미국도 자살 예방교육으로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자살률은 사회의 건강상태를 나타내주는 핵심지표 중 하나다. 한창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실현해야 할 시기에 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속출하는 사회는 건강할 수 없다. 청년층 자살방지사업은 30%를 넘고 우울증과 성적비판이 각각 10%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이나 교사 등도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경

우가 30%에 달해 10명 중 3명은 정확한 이유없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에는 유명연예인의 자살로 인한 모방자살이나 동반자살이 빈번한 것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살률은 사회의 건강상태를 나타내주는 핵심지표 중 하나다. 한창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실현해야 할 시기에 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속출하는 사회는 건강할 수 없다. 청년층 자살방지사업은 30%를 넘고 우울증과 성적비판이 각각 10%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이나 교사 등도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경

우가 30%에 달해 10명 중 3명은 정확한 이유없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에는 유명연예인의 자살로 인한 모방자살이나 동반자살이 빈번한 것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살률은 사회의 건강상태를 나타내주는 핵심지표 중 하나다. 한창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실현해야 할 시기에 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속출하는 사회는 건강할 수 없다. 청년층 자살방지사업은 30%를 넘고 우울증과 성적비판이 각각 10%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이나 교사 등도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경

우가 30%에 달해 10명 중 3명은 정확한 이유없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에는 유명연예인의 자살로 인한 모방자살이나 동반자살이 빈번한 것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살률은 사회의 건강상태를 나타내주는 핵심지표 중 하나다. 한창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실현해야 할 시기에 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속출하는 사회는 건강할 수 없다. 청년층 자살방지사업은 30%를 넘고 우울증과 성적비판이 각각 10%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이나 교사 등도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경

우가 30%에 달해 10명 중 3명은 정확한 이유없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에는 유명연예인의 자살로 인한 모방자살이나 동반자살이 빈번한 것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살률은 사회의 건강상태를 나타내주는 핵심지표 중 하나다. 한창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실현해야 할 시기에 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속출하는 사회는 건강할 수 없다. 청년층 자살방지사업은 30%를 넘고 우울증과 성적비판이 각각 10